천년왕국 복음

(계20:1~6)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년왕국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신앙고백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논란이 많아서 확정된 결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 논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이단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론을 갖고 오는데도 우리가 이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분명히 복되다고 하시므로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

는 내용들인데,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과제로 삼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뿐,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천년왕국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서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논란과 설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론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 천년설, 무 천년설, 후 천년설.
그런데 후 천년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대 견해는 바로 무 천년설과 전 천년설입니다.

그러면 무 천년설이란 무엇인가?
천년이라는 특별히 구분되는 기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자,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럴 때 무 천년설 입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므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것이라 이겁니다.
활동이 제한을 당했다는 얘기에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사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모든 기간이 실제로는 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 천년설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 천년왕국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탄인 붉은 용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이 결박을 당했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패배했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사탄이 결박당했습니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를 얘기하신 다음,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붉은 용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을 당했는가를 볼 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의 싸움, 여자를 붉은 용이 괴롭히려고 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을 삼키려고 했고, 붉은 용의 하수인들인 바다짐승과 666표의 땅 짐승이 계속 역사를 하다가, 바로 앞장에서 바다짐승과 땅 짐승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지금 여기서 결박을 당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사건 후에도 계속 사탄은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 천년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재림을 하신 뒤에 뭣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을 다스리는 기간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내가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어서 그 미혹하는 능력이 완전히 제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사탄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신자로 남아있고, 불신자로 남아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보고 자연적으로 믿게 된다는 얘깁니까?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안 믿을 사람이 세상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영화로우신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마음이 그분의 매력에 딸려 들어가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말이 통하는 거죠.
육체의 5감관으로 감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드리는 게 믿는 거지, 육체로 감지가 되는 멋진 모습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 천년 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마귀의 역사도 미혹함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복잡하고 말이 많고 논란이 일어나느냐 이거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의 핵심부분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옛 뱀이라는 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박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근본으로부터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으로부터 이해하면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마귀의 활동은 어떤 활동이든지 한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육체를 사랑하게 하고,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사람들이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5감관을 통해 만나는 이 세상의 사람과 가치들, 돈이라든지 인기와 형통과 번영과 부흥, 하다못해 좋은 예배당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우도록, 예배당 건축을 하는 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와 온 교인이 다~
이렇게 마음을 쏟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활동이 지금도 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 것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얻고 싶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다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 천년설의 말씀이 맞으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무 천년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완전히 패배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틀려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서조차 마귀는 역사를 해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백 억짜리 몇 천 억짜리 계속 짓고 있는데도 왜 교인이 자꾸 줄어요?
왜 교회가 자꾸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가장 멋진 예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죽고, 전체적인 교인 수는 이제는 800만이다 600만이다 이런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십자가에서 승리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귀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무 천년설이건 전 천년설이건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과 신앙의 개별적 차원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심은, 성도 십사만 사천 명으로 상징되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신랑 되시고 한분이시지만 1:1로 신랑이 되십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에요.
붉은 용이 사람을 미혹할 때, 붉은 용은 하나의 영적 인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적 인격체가, 예수님이 한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신랑이 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제어하는 역사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개인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구세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귀에 대한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의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해서, 범 우주적으로 70억 인구에게 역사하던 마귀가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분에게서만 죽은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승리를 내가 먹을 때 나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마귀는 무저갱에 결박돼서 갇힌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두나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것이 우리 인류를 죽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의 백신을 만들어서 그 백신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천연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천연두가 그 사람의 생애 동안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결박당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꼼짝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당한다는 건 있는데도 꼼짝 못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그 천연두 백신 속에는 천연두라는 균을 이기는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내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맞으면 내 주변 사방으로 천연두가 창궐해

도, 그 창궐한 천연두가 나에 대해서는 결박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개별적인 차원을 놓쳐버리니까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19장에서 혼인할 수 있는 합당한 신부로 되기까지 3대 7중 재앙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개별적인 차원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상실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것은 3대 7중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긴 자들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3대 7중 재앙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얘기는, 죽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확정된 자들이고, 그 확정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을 허락해주신다, 쉽게 말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깁니다.
3대 7중 재앙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행실이라는 것은 열매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에게 열매 맺도록 이루어주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허락받은 사람들이 결혼한 자들이고 이들에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 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잊어버리신 게, 개인적으로 3대 7중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혼한 상태에서 혼인할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과정을 망각해버리니까…
그냥 지금 이 과정 중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건 정혼한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이 점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벨론의 번영과 성공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바벨론의 성공을 위해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서 바벨론이 깡그리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고 하늘로만 기뻐하겠노라는 확정된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이 과정이 천년왕국으로 시작이 되고, 이럴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는 활동을 하는 이 사탄이 꼼짝 못하고 결박당한 상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과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천년왕국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느냐?
3년 반, 1260일,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두 선지자가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1260일 마흔두 달을 양육 받는다.’
이때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었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이 유대를 정복해서 성전을 모독했던 기간이 3년 반이고, 거꾸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해서 싸웠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고 얘기할 때는 숫자적인 기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에 진행된 삶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유대민족으로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상에서 없어지느냐 마느냐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싸웠던 것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이 지상에서 말살해버리려고 성전을 그렇게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행될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지, 천년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햇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삶의 질은 무엇이기에 천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1000이라는 것은, 10, 열을 우리가 충만한 수 만수(滿數)라고 하고, 그 만수가 열 번 모인 게 백입니다. 그리고 100이 만수 열 번으로 모인 것이 1000입니다.
즉, 충~만한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얘깁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이, 온전히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 이 충만함,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사탄이 미혹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 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십자가에서 마귀가 제어되었다고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내게는 완전히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내게 임할 수 있을 만큼, 내 뜻이 죽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소원이 죽고 내 판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늘로부터만 기쁨과 만족과 내 기업을 얻으리라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야 되고, 이 확고하게 선 상태에서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번역이 온전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번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냐 하면,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봤고, 다른 부류로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또 보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번역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 베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자꾸 순교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문자적으로 그걸 순교로 이해하려면 목 베임만이 순교입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목 베임을 당해 죽은 자만 아니라 화형을 당해 죽고 사자 밥이 돼서 죽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에 켜서 죽고 매 맞아 죽고… 가지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목 베임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 베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죽는다는 게 교리적 차원이거나 가르침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뜻도 마음도 힘도 소원도 판단도 모든 게 완전히 죽어버린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힘과 의지와 계획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또 이 땅에서 내 목숨이 허락되는 때까지.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두 짐승이 불 못에 던져지는 것도 얘기했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거라는 얘깁니다.
개별적인 나의 삶의 왕국에 하나님의 뜻이 꽉꽉 차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 - 개별적으로 정혼한 상태로부터 어린양의 신부로서 혼인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데까지 3대 7중 재앙의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 사실 - 을 망각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갈래분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기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린양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의 십자가가 중단돼버리니까, 붉은 용이 힘을 써서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까지 다해서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이루고 바벨론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데도 뭐가 뭔지 오리무중인 겁니다.
갈래분간이 없고 동서남북을 못 가린다는 얘깁니다.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서 완전히 용이 결박당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 소원도 꿈도 비전도 모든 게 다 죽어버리는 목 베임을 당하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3대 7중 재앙을 거쳐 가면서.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요한계시록의 전개 과정 중에서 어디쯤 와있는 겁니까?
아직도 666표를 가진 짐승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일은 더 잘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끝없이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면 666 짐승과의 싸움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인 겁니다.
그 중에는 표를 받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벗어나야 될 자들도 있을 것이고, 벗어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벗어나려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예수 열심히 믿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의 이해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의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이다.
이 근본으로부터 출발해서 해석해 왔고 그 맥락으로 계속 흘러가다보면 무 천년설이다 전 천년설이다 후 천년설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은 복음입니다.
짐승이 죽어버리고 불 못에 던져지고, 이젠 끝난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이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 뱀, 어떡하든지 하나님께 등 돌리도록 만들던 그 옛 뱀이 꼼짝 못하는 상태.
어떤 상태겠어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를 내 마음에 꽁꽁 동여매고.
사탄이 결박당하는 그 결박의 정도는 내가 십자가에 결박당하는 정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강하게 결박될수록 사탄은 강하게 결박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강하게 결박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나는 어린양의 죽음에 동참한 죽은 자라는 생각을 있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만으로 꽉 찬 천년왕국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 잘해야 천년왕국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교회 목회를 해야 천년왕국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적더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요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서의 천년왕국.
하루 빨리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좌표를 설정해주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논란 속에서 설전의 늪에 빠져서 허덕여야만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천년왕국의 복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